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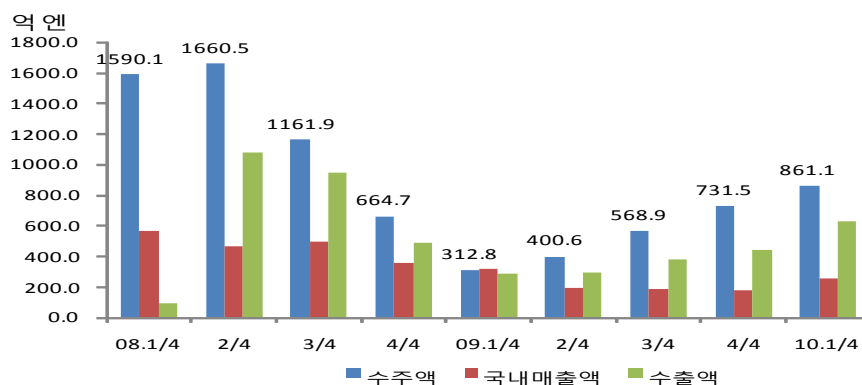
일본 산업로봇, 중국 수요확대로 수주 활기

일본 산업용 로봇의 수주액이 금년 1사분기 들어 차츰 활기를 띠고 있음.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, 중국 등 아시아신흥시장이 일본 기계 산업의 성장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음.

□ 일본 로봇공업회, 금년 1/4분기 산업용 로봇의 수주액이 증가하였다고 발표

- 일본로봇공업회는 금년 1/4분기 회원사 51개 기업의 산업용 로봇 수주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2.8배 증가한 861억 엔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(4.27일)
-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공장의 조립이나 도장(塗裝)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파낙스 등과 같은 일본 업체들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70% 정도에 달함.

<그림 1> 일본의 산업용 로봇 수주 및 국내외 매출 추이



주: 일본로봇공업회 회원사 51개 기업의 실적에 기초함.

자료: 일본로봇공업회(<http://www.jara.jp/data/01.html>)

- 그러나 상기 금년 1/4분기 산업로봇의 수주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'08년 2/4분기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

□ 일본 산업로봇의 해외수출은 증가 추세이나, 국내 매출은 아직 저조

- 금년 들어 중국에 공장을 둔 EMS(전자제품 제조서비스) 업체에 대한 일본의 산업로봇 수출이 급증, 1/4분기에는 전년동기보다 2.2배 증가한 630억 엔을 기록함.
- 특히, 중국에서의 고기능 휴대폰과 박형 TV의 생산 급증에 힘입어 일본의 전자부품 실장장치(實裝裝置) 수출이 급증하였고, 자동차 용접로봇도 수출이 크게 증가
- 그러나 금년 1/4분기 산업용 로봇의 국내매출액은 261억 엔으로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7.4% 감소함.
- 업종별로는 특히, 토목건설기계(-91.2%), 자동차(-68.7%), 컴퓨터(-58.3%)분야에서 산업로봇에 대한 수요가 급감
- 한편, 위와 같은 수출증가에 따른 수주 활기는 공작기계 부문에서도 나타남.
- 일본공작기계공업회가 회원사 9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, 금년 3월의 총 수주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.6배 증가한 758억 엔이고 이중 해외수주는 같은 기간 동안 4.2배 증가한 556억 엔을 기록함.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, 2010.4.28일자.

일본로봇공업회(<http://www.jara.jp/data/01.html>)

일본공작기계공업회(<http://www.jmtba.or.jp/01topF.html>)